

# 한국법제연구원 30년의 조직성장약사 組織成長略史

## - 인력규모 변화와 최근 조직체제 개편을 중심으로



☞ **현준원**  
☞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 실장  
✉ hyon@klri.re.kr

한국법제연구원의 공식적인 역사는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1990년 7월 30일부터 시작되나, 그 뿌리는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연구원의 설립근거가 된 「한국법제연구원법」(1989년 12월 21일 시행 부칙 제3조는 ‘재단법인 법령편찬보급회’와 ‘재단법인 입법기술연구소’를 해산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연구원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두 법인이 연구원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것인데, (재)법령편찬보급회가 1981년 6월 25일 설립되었고, (재)입법기술연구소는 그 부속기구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출범 당시 연구원은 국내법제연구실, 외국법제연구실, 특수법제연구실, 기획운영실, 총무부 및 법령편찬실 등 1부 5실로 구성된 40명 조직으로 출범하였다. 이때 연구인력은 9명에 불과하였고, 예산규모도 출연금은 8억여 원에 불과하였으나 법령편찬보급사업을 통한 수익예산이 47.7억여 원이었으므로, 초기 연구원은 법령편찬사업을 중심으로 법제연구 임무가 부가된 조직으로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출범 이후 연구원은 법제연구 분야에서는 인력증원과 출연금 예산증액을 통하여, 법령편찬사업 분야에서는 수익예산 증가를 통하여 꾸준히 성장한다. 2020년 현재 연구원 근무인원은 141명으로 출범 당시에 비하여 약 3.3배 늘어났으므로, 매해 평균 약 3명씩 인력규모를 키워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비정규 근무인력을 포함한 총원 숫자이고, 정원규모만 가지고 비교해 보면 더욱 눈부신 성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1999년 IMF 구제금융사태에 기인한 전사회적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당시 정원의 30%에 달하

는 11명 감축이 결정되어 22명으로 축소되었던 정원규모가 현재는 132명까지 증가하였으니, 약 20년 동안 6배나 식구가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인력규모 성장은 글로벌법제전략 연구사업,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재정법제연구사업, 입법평가연구사업 등 현재도 해당 또는 그 후속 연구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각종 연구사업의 신규추진이 견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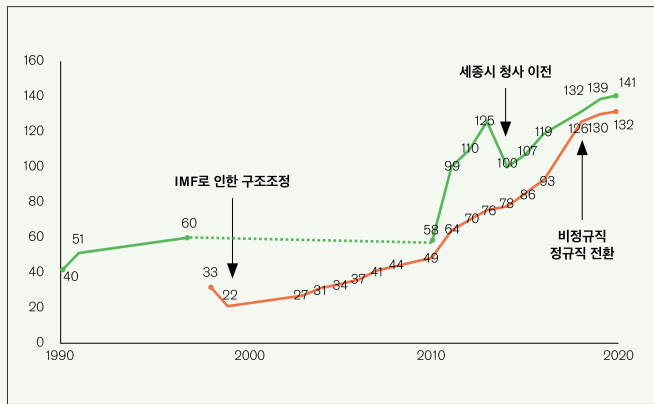
### 주요 사업별 인력증원 내역

사업명	증원연도	증원인원(명)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비교법제연구사업 포함)	'07년 / '11년	19
법제분석지원사업	'12년 / '15년	8
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재정법제연구사업 포함)	'06년 / '20년	5
녹색성장정책의 법제화사업(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10년	5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사업(법제교류지원사업)	'04년	4
혁신성장법제지원연구사업	'19년	4
법령용어정비사업	'05년	3
입법평가연구사업	'08년	3
법령영역사업	'16년	1

신규 연구사업 추진 외에도 지난 30년 동안 연구원의 인력규모에 큰 변동을 가져온 몇 가지 대표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앞서도 언급한 1999년 이른바 IMF사태였다. 이 때 연구원은 정원 33명, 비정규직 포함 총원 60여 명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3분의 1이 감축되는 칼바람을 피할 수 없었다. 이후 2007년에는 국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이 본격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많은 연구인력이 자리를 옮기는 일이 있었고, 2014년 연구원 세종시 이전 시에는 당시 비정규직 인력의 반 이상과 일

부 정규인력이 이직을 선택하여 정든 연구원을 떠나는 변화가 있었다. 그 외에 2018년엔 이번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29명의 비정규직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이로 인해 정원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정원규모가 130여 명에 달하는 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연구원 30년의 근무인원 변화



2018년에 대규모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은 직군 및 직급 등 인사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우선 많을 때는 거의 50명에 달하던 계약직원을 휴직대체 인력 채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채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비정규직 숫자가 대폭 줄은 반면에, 정규직 정원은 크게 늘어났다. 아울러 이때 정규직 전환이 된 인력이 주로 법령번역업무와 연구지원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었는데, 그간은 이러한 직역을 대부분 계약직원으로 운용해 왔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던 승진체계 등의 정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비를 통하여 현재 연구원은 연구사업을 책임수행하는 박사급 연구인력을 ‘연구직’, 연구지원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과 법령번역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전문직’, 그리고 기본행정업무와 연구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행정직’으로 구분하여 연구직-전문직-행정직의 직군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직은 부연구위원-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 전문직은 연구원-전문연구원-전문위원, 행정직은 행정원-선임행정원-책임행정원과 같이 각 직군 3단계 직급체계로 정비되었다.

‘19년 개편에 따른 연구원의 현행 직군 및 직급체계 (‘20.5 기준)

직군	연구직	전문직	행정직	공무직
직급	선임연구위원	전문위원	책임행정원	경비원/미화원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선임행정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행정원	
업무	법제연구	법령번역/연구지원	행정/연구행정	경비/미화
현원(명)*	56	34	36	4

조직체계와 관련한 최근의 가장 큰 변화는 본부책임운영제 개념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본부책임운영제란 조직구성을 본부조직 중심으로 구축하여 각 본부가 최대한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고 각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연구원의 경우 올해 초 3본부, 1센터, 2실 체계로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본부책임운영제 구현을 위한 조직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현재의 3본부는 기존의 9실을 유형별로 그룹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던 기존 조직체계가 갖는 단점을 극복하고, 특히 각 본부에 각각 연구지원팀을 두어 각 본부의 업무특성과 상황에 맞게 효율적인 연구수행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3본부 체계구축은 각 본부의 독립성과 책임성 제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더욱 고품질의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지난 30년간 연구원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과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조직변화와 꾸준한 증원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금의 연구원은 정원 132명의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현재의 조직구성과 인력규모가 연구원에 부여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기에 최선인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연구원은 최선을 찾기 위한 노력을 중지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 갈 것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앞으로도 계속 시대는 도도하게 변화해 가겠지만, 연구원도 지난 30년과 같이 도도한 성장을 지속해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